

消費國과 產油國의 對話

金 演 昇

(韓國石油產業開發센터)



1973年の石油波動以來 世界の石油情勢는 많은變化를 가져왔다.

OPEC 產油國은 石油價格 引上和 石油運營權의 國有化를 爲하여 공격 태세로 一貫했고 消費國은 消費國대로 防禦戰을 펴다가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物價上昇에 따르는 經濟不安에까지 몰고 왔다.

消費國中에서도 에너지 資源이 풍부하고 開發能力도 있는 美國은 에너지 政策의 再確立을 서둘러 消費國의 團結을 부르짖으며 종래의 이니셔티브를 固守하려 했으나 消費者 各國의 意慾과 利害相反으로 團合조차 이루지 못하고 一時 苦戰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石油波動을 겪은지 3년이 되는 75년에 와서는 그 情勢의 變化가 消費國側에 有利하게 轉換되 가고 있는 立場에서 對話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實情을 살피기 前에 OPEC 產油國과 消費國이 결어 온 重要事件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PEC와 消費國의 重要事件

OPEC 即 石油輸出國機構는 1960年 9월에 設置되어 產油國同盟의 役割을 하면서 1970년까지는 公示價格의 維持에 汲汲하였고 1971年 2月 14日 테헤란 協定을 체결하므로써 Royalty의 消費化 公示價格 引上(35~40cent), 所得稅率 引上(50~55%)을 斷行했고 1972年 1月 20日 제너바 協定에서는 弗貨流動에 따르는 價格引上(8.48%)을 하고 1972年 12月 20日 리야드 協定에서는 처음 25%에서 1981년에 51%의 經營參加協定을 하였으며(現在는 이를 무시하고 거의 100%의 經營참가 협상 중) 1973年 10月 16日에는 原油價의 大幅引上(約 3億)과 함께 對美 西方側의 斷油措置를 한 바 있으나 1974年 2月 이후에 이르러서는 原油價格의 凍結과 斷油解除, 1974年 6월에 價格凍結 저지명, Royalty 2% 引上,

1974年 9月 價格 계속 凍結, 所得稅, Royalty 3.5% 引上, 1974年 12月~1975年 9月 30日까지 價格凍結을 연장하고 新價格制를 채택 결의한 바 있다.

한편 消費國側은 美國의 끈질긴 主導力으로 1973年 12月 Kissenger 美國務長官이 London 會議에서 에너지 行動 구름 設置案을 提唱하고 에너지 保存을 爲한 共通解決策 모색, 新에너지 開發과 開發促進, 에너지 生産優待措置, 石油對 替資源의 發見, 共同研究, 計劃調整을 力說했다.

이어 1974年 1月 19日 Nixon 大統領이 石油 消費國會議 開催를 제창함에 따라 1974年 2月 11日~13日 Washington 會議을 13國 參加下에 開催하였다.

에너지 調整 구름(ECG)을 設立하여 產油國 消費國間의 合同會議을 主선하므로 石油節約, 緊急時 石油相互融通, 代替 에너지 開發 등을 促進키로 했다.

이 會議에 參加한 各國도 各者의 異見이 있었으나 特別히 異見이 많았던 나라는 불란서이며 1974年 10月 24日 지스칼 大統領은 産油國과의 對決을 회피하기 爲하여 消費國, 産油國, 發展途上國의 合同會議를 주장하고 ECG에는 不參하나 OECD內의 IEA 設置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1974年 11月 2日 Kissinger 主宰下에 5個國(美, 英, 佛, 日, 西獨) 外相 및 藏相會議를 開催한 바 있고, 1974年 11月 13日에는 Brussels에서 ECG 會議를 열고 ECG에 대하여 IEA 設置에 合意, 同 11月 18日 OECD 理事會에서 IEA 設置案을 決議했다(佛國은 不參).

IEA 參加國은 美, 英, 日, 西獨 등 18個國이며 그 目標은 緊急時의 消費國間의 石油 融通, 長期的인 消費節約, 需要抑制, 輸入依存의 漸減, 代替 에너지 開發 保進에 따른 石油供給의 安定化 등이다. 그리고 同機構로서 이런 計劃의 執行 및 運營을 爲하여 OECD(파리에 설치)內에 IEA 本部를 設置키로 했다.

2. 危機克服의 열쇠를 쥔 對話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石油情勢로 보아 世界는 OPEC 産油國, 消費國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개의 世界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石油의 위기를 해소시켜 나가서는 國際 에너지의 長期的인 安定化를 결정짓고자 하는 것이 바로 Kissinger 構想과 佛대통령의 提唱으로 이루어지는 産油國과 消費國間의 合同會議라 하겠다.

産油國은 1月の OPEC 閣僚會議 所要國은 2月の IEA 理事會를 開催하고 3月末 開催豫定인 合同會議準備會議에서 論議될 여러 가지 問題에 대한 對策을 협의하고 있다.

이 合同會議를 가르쳐 Kissinger 長官은 『歷史는 우리에게 危機라는 形態로 偉大한 機會를 주고 있다』고 갈파했다.

事實 原油價格의 長期化, Oil Money의 還流 등의 해결을 目標로 開催하려는 合同會議의 成否는 深刻한 世界의 不況, 인플레이를 克服할 수 있는 極히 重要한 機會가 아닐 수 없다.

지스칼 佛國 大統領이 提唱하는 이 合同會議는 産油國도 贊成하는 形便이어서 今年 여름까지는 틀림없이 開催되리라는 期待를 걸고 있는 것이다.

合同會議 參加國 主要 테마는 産油國 그룹과 先進國 그룹 外에 開發途上國 그룹의 代表들이 參加하게 될 것이며 代表國으로서는 産油國側에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아」, 「베네주엘라」 등이며 消費國側으로 美國, 불란서, 英國, 日本, 開發途上國은 「브라질」, 인도, 「자이레」 등으로 豫定하고 있다.

主要計劃課題는 石油價格과 그의 還流 등이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야마니」 石油鑛物相은 合同會議가 開催된다면 가장 主要課題는 石油價格이라고 했고 Kissinger 長官도 『産油國, 消費國 雙方이 滿足할 수 있는 長期的으로 安定될 石油價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會議(準備—3月末, 파리本會議 6月)가 成立된다 하더라도 이에 參加할 産油國과 消費國間의 思考差異가 戰略的으로 多様한 바 있어 그 成果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産油國側도 利害相反과 意見의 差異는 있으나 그들이 價格에 집념하는 카르텔의 團結力은 쉽게 부서지지 않으리라고 展望된다.

3. 合同會議의 歸趨

以上과 같이 産油國과 消費國은 各各 立場과 見解의 差異는 있으나 3月の 合同會議에 參加하기 爲한 各國의 準備會談이 活潑히 展開되어 OPEC 閣僚會議, 首腦會議, 外相·石油相會議, 消費國의 IEA 理事會 등을 開催하여 各國의 異見을 調整한 결과 最近의 情勢로 보아서 消費國이 有利한 것으로 轉換되어 있는 實情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같은 情勢 전환을 具體的으로 살피면, ① OPEC 內部에서는 石油價凍結을 今年~3年內의 凍結 원칙으로 기울이고, ② 美國의 國際 에너지에 이니셔티브를 잡으려는 꾸준한 努力과 鬭爭을 昨年未까지만 해도 OPEC의 공격 태세로

一變하여 守勢에 몰리고 있는 형편이며, ③ 消費國의 石油節約은 거의 完全한 合議를 보고 있으며, ④ 代替 에너지 開發策을 確立하여 더욱 有利한 立場에 서려고 하고 있다.

産油國이 守勢로 轉換된 正세의 좀더 詳細한 理由를 보면, 消費國의 石油需要가 激減됨에 따라 産油國에서는 自然 産油量을 削減시키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昨年에 生産削減이 컸던 나라는 「리비아」, 「크웨이트」, 「이락」 등이며 「리비아」는 再昨年에 比해서 20% 이상이나 削減했다.

産油價格도 下落勢를 보이고 있으며 「알제리아」, 「리비아」 등의 地中海 原油는 巴虜當 30~50%나 하락하고 있다.

이 외에도 各産油國은 原油代金の 支拂 유의 기간을 延長하는 등 실질적인 價格引下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먼저 OFEC 閣僚會議에서도 급진파인 「알제리아」가 主導하려 하였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온건파인 「사우디」가 主導한 것이며 「야마니」石油鑛物相은 9月까지의 石油價 '凍結' 來年 以後까지도 계속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이 昨年까지도 石油價格引上만의 부르짖던 OPEC 諸國이 方向을 轉換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OPEC의 內部事情에 따른 것으로 여러 가지 異見 調整이 평탄치 않은 것 같다.

이에 대하여 消費國은 「카리브」海의 佛領 「마르티니크」島에서 12月 14~16日에 열린 美·佛 首腦會談에서 이제까지의 에너지 問題에 대한 異見을 調整하고 石油의 合同會議開催에 合議함으로써 消費國의 손발은 점차 맞아들어가고 있다. 即, 石油緊急融通計劃作成, IEA의 設立, 金融援助協定에 대한 合議에 이어 이번의 IEA 理事會에서는 今年 IEA 諸國의 石油 절약량을 200萬 b/D로 할 것에 合議했다. 다만 남은 課題로서는 에너지의 長期需給目標, 代替 에너지 開發, Oil Money의 生産의 投資에 대한 導入등인데 이러한 點이 合議되면 産油國과의 合同會議에 臨할 態勢가 가추어지게 된다.

長期目標은 10年後의 IEA의 에너지 計劃이므로 石油消費節約과 代替 에너지 開發發展에 따

라 크게 달려질 수 있어 于先은 代替 에너지 開發 促進策의 調整이 우선할 것 같다.

代替 에너지 開發策에 있어서는 Kissinger 長官이 提案한 石油最低價格制의 設定外에 各國의 資畧과 技術을 合하여 共同 代替 에너지 開發機關을 設置하는 등 各國의 프로젝트마다 리스크를 保證하는 등 몇가지 案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그 中에서도 美國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石油輸入에 대한 최저 價格制는 消費國이나 産油國에 커다란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4. 美國이 主張하는 眞意는 ?

2月에 열린 IEA 理事會에 出席한 各國代表들은 美國에 대하여 具體적인 內容을 求하기로 한다는 程度로서 最低石油價格制의 繼續審議로서 閉幕했다.

事實上 美國의 眞意가 어디에 있는지 不투명한 點이 있는 것도 事實이며 美國도 그 眞意에 兩面이 있음을 示唆하여 더욱 의아한 感을 주고 있다.

물론, 그 理由의 하나는 消費國이 높은 코스트의 代替 에너지 開發에 着手하더라도 OPEC 諸國이 石油 값을 내린다면 投資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크다는 것은 石油危機 직후부터 論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消費國內의 新規 에너지 資源 開發을 爲하여서는 최저가격제를 實施하여야 한다는 方針이 造成돼 왔고 昨年 2月の 와싱턴 會議의 結果, 現在 IEA의 前身인 12個國 그룹(IGA) 結成 후부터 最低價格制는 專門家の 論議對象이 되어 왔던 것이다.

IEA가 昨年 12月에 發足, 活動을 개시한 이래 美國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한 構想을 示唆했으며 2月 3日 Kissinger 長官이 행한 演說은 IEA 理事會를 앞두고 이를 體系化하여 OFEC 諸國을 포함한 各國의 反應을 살피고자 한 것에 不過하다. 그러한 點으로 보아 IEA 제국에 대하여는 돌발적인 것도 아닐 것이다.

美國은 世界 에너지 面에서 主導權을 回復하려 하였고 先進國의 運命을 OPEC 諸國에 맡길

수 없다는 執本的인 思考方式으로 코스트 면에서는 OPEC에 따를 수 없으나 國內의 新規 에너지 資源開發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英國도 北海開發에 있어 같은 立場이 될 것이나 다만 國內新規資源이 不足한 西獨이나 日本은 그 立場이 다르다.

그뿐 아니라 最低價格制에는 또 하나의 側面이 있다. Kissinger 長官의 演說에서 최저가격제에 의한 新規 에너지 개발촉진은 그 價格이 現往보다 低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 價格이 消費國과 産油國間의 協定價格의 參考가 될 수도 있다』고 하여 協定價格의 設定意向을 示唆했다.

IEA에 出席한 美國의 엔다스 首席代表도 石油價格의 長期安定을 強調하고 있으며 最低價格制를 實施하여 産油國과의 價格協定에 誘導할 것을 示唆했다.

프랑스 新聞도 최저가격제는 벌써부터 프랑스가 主張한 産油國의 安定收入確保方向에 美國이 接近한 것이라고 말했다.

最低價格制는 이와 같이 두 개의 側面으로서 合同會議에서 提案할 것이 거의 確實한 것 같다.

아무런 合同會議準備회답에서, ① 最低가격제, ② 節約 ③ 還流問題—金融援助 등의 課題를 합의하기 爲하여 西獨, 日本 등과 協의를 거듭

하고 있어 어느 線에서 合意를 볼 것인지 注目된다.

5. 日本, 西獨 등의 協力이 重要

以上の 課題를 가지고 合同會議에 臨할 때 産油國은 攄引上으로 突進하여 온 그 동안의 石油價에는 발이 맞았으나 需要의 減退, 消費國 特別히 開發途上國 등 今日에 이른 여러 가지 問題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最近에 와서도 最低價格制와 價格의 長期安定化에 대하여는 아직도 뚜렷한 反應이 없지만 OPEC 各國마다의 反應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人口도 적고 王制를 유지하기 爲하여 美國의 絶대적 支援이 필요한 나라와 같지는 않겠지만 産油國이 合同會議에 參加하는 以上 世界의 不況, 인플레이, 第4世界에 의한 中樞에 대한 認識 등의 理解를 強要할 것은 曁한 일이며, 어느 程度의 양보는 있음직하다(石油代金の 10年, 15年 延期拂 등). 그러나 이번 會議은 어디까지나 消費國側이 要求하는 立場이고 보면 會議에 臨할 戰略과 合意가 事前에 充分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특히 日本, 西獨 등의 協力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 電話番號變更案內 ◆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이 使用하시던 科學技術會館電話番號가 今般 電話局事情에 依하여 變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變更電話 = (57) 2404 (總務部)
- (57) 2328 (기술봉사단, 편집부, 연구부)
- (57) 2172 (韓國石油産業開發센터)
- (57) 2381 (서울國際사이언스클럽)